4. 관계의 소중함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선현들의 문장을 배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青取之於藍而青於藍이라. "순자"

無道人之短하고 無說己之長하라. "문선"



새로 배울 한자

*藍 **람** 쪽　　斷 **단** 끊다　　臭 **취** 냄새　　蘭 **란** 난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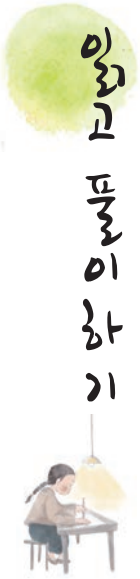
- 而의 쓰임을 알 수 있다.
- 문장을 이해하여 올바른 관계 맺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樹欲靜而風不止하고 子欲養而親不待라. "한시외전"

二人同心은 其利斷金이요

同心之言은 其臭如蘭이라. "역경"



青取之於藍而青於藍.
~에서 ~보다

직역 ☞

의미 ☞

*而: 말을 잇다(그리고, 그러나 등)

無道人之短, 無說己之長.
남 장점
말하지 말라. 단점 ~의

직역 ☞

의미 ☞

*道: ① **말하다** 報道(보도)
② 길 道路(도로)
③ 도리 道理(도리)

*說: ① **설** 말 說明(설명)
② **열** 기쁘다
=悅 喜悅(희열)
③ **세** 달래다 遊說(유세)

樹欲靜而風不止, 子欲養而親不待.
그러나 봉양하다 어버이

직역 ☞

의미 ☞

二人同心, 其利斷金, 同心之言, 其臭如蘭.
날카롭다 같다

직역 ☞

의미 ☞

*利: ① 이롭다 有利(유리)
② **날카롭다** 銳利(예리)

새로 배울 한자

銳 **예** 날카롭다
孔 **공** 구멍, 성씨

문장의 구조(II)

- 주술목(주어+서술어+목적어): 其利 斷 金 그 날카로움이 쇠를 끊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 주술목보(주어+서술어+목적어+보어):
  孔子 問 禮 於老子 공자가 노자에게 예를 물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단문을 현대적으로 표현해 보기

아래의 문장을 일상생활의 대화체로 표현해 보고, 그 의미를 2어절로 압축 해보자.

① 靑取之於藍而靑於藍.

예) 제자가 스승보다 낫네	⇨	뛰어난 제자

② 無道人之短, 無說己之長.

	⇨	

③ 樹欲靜而風不止, 子欲養而親不待.

	⇨	

④ 二人同心, 其利斷金, 同心之言, 其臭如蘭.

	⇨	

생각 넓히기

인문학 더하기

스승 김정희와 제자 이상적 이야기



메마른 붓질로 표현한 집 한 채와 듬성듬성 잎을 매달고 있는 앙상한 나무. 집에 비스듬히 기댄 소나무와 그 옆에 있는 잣나무 몇 그루. 눈 내린 흔적은 없지만 왠지 추운 겨울의 쓸쓸하고 스산함이 느껴지는 세한도.

이 그림은 추사 김정희가 유배되었을 때 그린 작품이다. 그의 제자 이상적은 중국에 사신을 갈 때마다 최신 서적을 구해 유배지에 있는 스승에게 보내주었다. 최고의 학자였던 시절이나 유배된 뒤나 항상 변함없는 제자의 행동을 보며 스승은 『논어』의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뒤에 시듦을 안다(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를 떠올린다. 유배된 자신의 처지와 제자의 의리를 생각하며 그림을 완성한 후, 위에 '세한도(歲寒圖)'와 '우선시상(藒船是賞)'이라는 글을 썼다. '우선시상(藒船是賞)'은 '이상적은 감상하시게.'라는 뜻으로 '우선(藒船)'은 제자의 호(號)이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자(長毋相忘)'라는 인장을 찍어 그림을 제자 이상적에게 전해 주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변하지 않고 서로를 아끼고 생각하던 마음이 그림 한 점에 담겨 있어 감동을 전해 준다.

어휘력 키우기



1 '刀(刂)'가 들어간 한자

制 제 만들다 _ 製作 제작　　刊 간 책 펴내다 _ 創刊 창간　　剛 강 굳세다 _ 剛硬 강경
刺 자 찌르다 _ 刺客 자객　　削 삭 깎다 _ 削髮 삭발　　副 부 버금 _ 副總裁 부총재

2 '人(亻)'이 들어간 한자

伯 백 맏 _ 伯父 백부　　供 공 주다 _ 供給 공급　　係 계 걸리다 _ 關係 관계
倍 배 곱 _ 倍數 배수　　儉 검 검소하다 _ 儉素 검소　　儒 유 선비 _ 儒敎 유교

3 학습 용어_ 수학·과학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단어를 찾아보고, 풀이와 의미를 알아보자.



4 어휘 의미 확장하기

- 拍車 **박차** 수레를 치다 → 어떤 일을 촉진하려고 더하는 힘
- 薄氷 **박빙** 얇게 살짝 언 얼음 → 근소한 차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聲援 **성원** 소리를 질러 응원함 → 하는 일이 잘되도록 격려하거나 도와줌.

새로 배울 한자

制 **제** 만들다　刊 **간** 책 펴내다　創 **창** 비롯하다　剛 **강** 굳세다　硬 **경** 단단하다
刺 **자** 찌르다　削 **삭** 깎다　髮 **발** 터럭　副 **부** 버금　總 **총** 거느리다
裁 **재** 마름질하다　伯 **백** 맏　供 **공** 주다　係 **계** 걸리다　倍 **배** 곱

확인하기



1. ㉠의 쓰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靑取之於藍㉠而靑於藍.

① 앞뒤 문장을 연결함.
② 어떤 대상을 부리어 일을 시킴.
③ 마음속 깊이 느끼어 탄복함을 나타냄.
④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 나타냄.
⑤ 점진적으로 어구를 겹쳐 뜻을 넓혀 주제로 이끎.

2. ㉠에서 마지막으로 풀이되는 것은?

> 無道人之短, ㉠無說己之長.

① 無　② 說　③ 己　④ 之　⑤ 長

3. 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 樹欲靜而風不止, 子欲養而親不待.

①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저마다의 장점이 있군.
② 힘든 시련을 이겨 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③ 능력은 뽐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마련이야.
④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면 어떤 일이든 이룰 수 있겠네.
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잘해야겠어.

儉 **검** 검소하다　儒 **유** 선비　徑 **경** 지름길　鈍 **둔** 둔하다　胞 **포** 태
媒 **매** 중매　顯 **현** 나타나다　微 **미** 작다　鏡 **경** 거울　拍 **박** 치다
薄 **박** 엷다, 얇다　援 **원** 돕다